

# 광주 찾는 수영스타 '별들의 전쟁'



**Fina**  
WORLD  
CHAMPIONSHIPS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전 세계의 '수영스타'들이 광주에 총출동할 예정이다.

오는 7월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193개국 선수 2995명이 출전해 금메달 76개를 놓고 벌일 '별들의 전쟁'에 전 세계의 눈이 집중될 전망이다.

경기 종목별로 수영스타들의 면면을 소개한다.

◇경영 = 금메달 42개가 걸려 있는 경영에는 20여 명의 '수중 스피드 건'들이 자웅을 겨룬다.

## '수중 스피드건' 대회 7관왕 美 카엘레프 드레셀

금메달 13개 걸린 다이빙 중국이 세계 최강자

'물 속 마라톤' 오픈워터 강철체력 자웅 대결

우선 2017년 부다페스트 7관왕인 미국의 카엘레프 드레셀(22)이 부동의 최강자다. 카엘레프 드레셀은 부다페스트에서 개인 자유형 50m·100m·점영 400m, 팀 계영 400m·혼계영 400m, 혼성계영 400m·혼성 혼계영 400m를 석권했다.

이러 부다페스트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가져 간 영국의 애덤피터(24)도 최정상급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쑨양(27)과 쉬 지아위(28)도 자유형 200m·400m, 배영 100m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한국의 박태환(29)은 혼련 일정을 이유로 아쉽게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

여자선수들 중에서는 부다페스트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개를 거머쥔 미국의 케이티 레데키(22)와 금메달 5개·동메달 1개를 차지한 시몬 마누엘(22)이 최강자

다. 이어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목에 건 스웨덴의 사라 요스트롬(25)도 우승권 실력자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혼영 200m 금메달과 올해 국제수영연맹 챔피언스 경연시리즈 1·2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김서영(25)이 기대주다.

또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과 동아시아수영대회에서 두 번 연속 배영 100m 한국 신기록을 경신한 입다술(22)도 메달이 기대된다.

◇다이빙 = 금메달 13개가 걸린 다이빙 종목은 중국이 최강자다.

부다페스트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딴 씨에 씨이(23)와 차오 위안(24), 천 아이선(23)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한 데다.

국내 선수로는 우하람(21)이 기대주로 꼽히고 있다. 우하람은 지난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이 출동한다.

프랑스 마르크 앙투안 올리비에(23)는 부다페스트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로 최정상에 올랐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도 동메달 1개를 차지했다.

네델란드 페리 바이트만(27)도 부다페스트와 리우올림픽에서 각각 금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이탈리아의 마테오 풀란(30)도 키 194cm, 몸무게 80kg의 건장한 체력을 앞세워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여자선수 중에는 부다페스트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차지한 프랑스 오텔리 빌러(29)가 최강자로 꼽힌다.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딴 미국의 애슐리 트윈첵(30)과 은메달 1개를 목에 건 에피도르의 사만다 아레발로(24)도 눈여겨 봐야 할 선수다.

◇아티스틱수영 = 물 속의 발레를 선보이는 아티스틱수영은 금메달 10개를 놓고 개인별, 팀별에 승부를 겨룬다.

선수 인원에 따라 솔로와 듀엣, 팀, 프리 콤비네이션, 하이라이트 루틴으로 세부 종목이 나뉘며, 경기 유형에 따라 음악과 안무에 제한이 없는 프리루틴과 필수요소를 연기해야 하는 테크니컬루틴으로 구분한다.

부다페스트에서 솔로와 듀엣 부문의 금메달 4개를 거머 쥔 러시아의 스페틀라나 콜레시첸코(25)가 독보적인 실력을 선보였다.

금메달 3개를 딴 러시아의 알렉산드라 파츠케비치(30)도 우수한 실력으로 세계를 제패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수구 = 수영 종목 중 유일한 구기종목인 수구는 남·여 각각 금메달 1개를 놓고 국가대항전이 치러진다.

워낙 치열하다보니 경기 중 수영복이 찢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2017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 17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남자부부는 크로아티아가 금메달을, 헝가리가 은메달을 차지했다.

여자경기에서는 미국이 금메달을, 러시아가 은메달을 땀다.

◇하이다이빙 = 금메달 2개가 걸린 '할나'의 묘기인 하이다이빙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최고 흥행 종목으로 꼽힌다.

개최 도시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남자 27m, 여자 20m 높이의 플랫폼에서 물 속으로 뛰어내린다.

광주대회도 조선대에서 열리는 하이다이빙 종목의 입장권이 96% 이상 판매돼 최고 판매율을 보였다.

다이빙의 공중 예술연기와 함께 광주시 전경, 무등산이 함께 어우러진 배경이 전 세계를 매료시킬 예정이다.

부다페스트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금메달을 목에 건 미국의 스티븐 료류(34), 2017년 FINA 하이다이빙월드컵 금메달리스트 영국의 개리 헨트(36)가 광주대회에 출전한다.

여자선수 중에서는 부다페스트 호주 금메달리스트 리아난 이프랜드(27)와 은메달을 딴 멕시코의 아드리아나 히메네즈(34)가 연기를 선보인다.



## "사이영상, 류현진 아닌 슈어저라고?"

워싱턴포스트신문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선두주자" 기사

류현진(32·LA 다저스)보다 맥스 슈어저(35·워싱턴 내셔널스)가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레이스에서 앞선다는 현지 매체의 분석이 나왔다. 눈부신 피칭을 하고 있는 류현진이 압도적인 사이영상 후보라는 점에서 의외의 평가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9일(한국 시간) '류현진이 아닌 슈어저가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선두주자여야 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먼저 류현진의 성적을 언급했다. "류현진은 9승1패 평균자책점 1.26을 기록하고 있다. 85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동안 5개의 볼넷만 내줬다. 올해 선발 등판한 14경기에서 2실점 이하 1볼넷 이하를 허용했는데 지난 110년 동안 10경기 연속 2실점, 1볼넷 이하를 기록한 투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류현진보다 슈어저에 더 높은 가치를 매겼다. 슈어저에 대해서는 "5승5패, 평균자책점 2.81은 모두 류현진보다 떨어진다"면서도 "9이닝당 탈삼진에서 앞선다. 올 시즌 최악으로 평가 받는 야수들과 함께 경기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예를 들어 슈어저는 올해 284삼진을 거둬 페이스인데 이는 류현진보다 139개가 많다"고 설명했다. 슈어저는 올해 15경기에서 136개의 삼진을 슈어내고 있다.

야수들의 공격과 수비 덕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저스는 류현진이 등판할 때 평균 5.7점의 득점 지원을 해주지만 슈어저는 평균 3.8점만 지원받고 있다. 내셔널리그 평균 득점지원은 4.8점"이라며 다저스의 매서운 공격력이 류현진을 돕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비에서는 다저스가 올해 리그에서 가장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는 팀인 반면 워싱턴은 그렇지 않은 팀이라는 점을 들어 "FIP(수비 무관 평균자책점)에서 슈어저가 2.27로 류현진(2.52)보다 앞선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이영상 예측 지수인 토탈고포인트에 따르면 슈어저는 올해 사이영상 경쟁에서 앞설 것이다. 이에 따르면 슈어저는 81.5로 류현진(70.5)을 앞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강정호, 1438일만의 3루타

1안타 1타점 1볼넷 1득점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32)가 1438일 만에 3루타를 때려냈다.

강정호는 19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 홈경기에서 7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타점 1볼넷 1득점을 올렸다. 2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낸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148에서 0.153로 올랐다.

초반 흐름은 좋지 않았다. 2회 1사 2루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강정호는 3루수 땅볼로 들어서며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수비에서도 아쉬운 장면이 나왔다. 팀이 1-2로 뒤진 4회초 무사 2, 3루에서 존 히스의 강습 타구를 잡지 못했다. 강정호의 실책으로 주자 2명이 모두 홈을 밟아 더 뼈아팠다. 올 시즌 5번째 실책이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마을, 회현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